일반논문 「정부학연구」 제22권 제3호(2016): 135~155
DOI http://dx.doi.org/10.19067/jgs.2016.22.3.135

원고투고일: 2016.10.24
게재확정일: 2016.12.06

주디스 버틀러와 윤리적 행정* **

이문수***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며 후기구조주의 철학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 다원적 사회에서 윤리적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버틀러에게 인간 주체는 자신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로의 ek-static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규범에 의해서 그 인간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 불투명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타자에게 열려있고 스스로에게 불투명한 인간은 근본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보편적 존재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체(형성)에 대한 버틀러의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윤리적 행정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하나는 정부행정에 내재하고 있는 규범적 폭력의 가능성, 두 번째는 인간들의 근본적 관계성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정질서의 수립, 세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따른 돌봄 행정을 넘어서는 비폭력적 행정의 추구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 행정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려 하거나 그에 대하여 판단하려 하는 권력의 욕망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주제어: 윤리적 행정, 취약성, 불안정성, 주디스 버틀러

> 주체가 스스로에게 불투명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주체가 마음대로 타자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면서 행위를 하게끔 허락하는 것은 아니

* 본 연구는 2016년 하계 행정이론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귀중한 충고를 해주신 임의영, 신희영 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20141320)으로 이루어진 것임.
*** 미국 조지아대학교(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행정윤리 등이다 (mslee@cu.ac.kr).

> 다. 그 반대가 진정한 사실이다. 주체의 불투명성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에 따른 결과로서, 이때의 관계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아주 어린 시절에 (나를 형성시켰던) 근본적 관계를 포함한다 … 주체형성 관계에서 수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불투명성에 대한 가정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특별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그것은 주체가 스스로에 대하여 불투명하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유대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점이다 (Butler, 2005: 20).

Ⅰ. 머리말

윤리적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말하는가? 본 논문은 철학자이며 비평가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주장에 기대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이다.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이며 가장 진보적인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버틀러는 윤리의 의미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는바 날로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녀의 철학에 대한 탐색과 고찰은 우리나라 행정의 윤리적 정당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윤리이론들은 윤리의 의미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관료 개인의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윤리적 관료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특정한 존재론적 가정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성문화된 몇몇 규정들만 지키면 관료들의 윤리성이 확보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왔다. 여기서의 존재론적 가정이란 행정행위를 하는 관료나 그 대상이 되는 시민들 모두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스스로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성적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많은 행정학자나 공직자들이 윤리적 관료 또는 정부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어진 사회규범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개인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위에서 윤리적 정부는 윤리적 관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 되고 윤리적 관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 기준은 관료가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법규나 규칙을 포함한 규범들을 지켰는지 아닌지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윤리적 행정이 되는 지의 여부는 자기 투명한 관료들에 의해 코드화된 규범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로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위 하는 자율적 주체는 계몽주의적 환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헤겔이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아가 비로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한 이후로, 그리고 주체형성에 있어서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자율성이 아니라 의존성(dependency) 또는 취약성(vulnerability)이 인간이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한 존재론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생존은 타자의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경험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국가가 경쟁이나 능률을 이념적 지향점으로 두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가로부터 돌봄과 보살핌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김희강, 2016; 마경희, 2011).

사회정의와 윤리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자율적, 자기 투명적 개인을 전제로 관료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윤리적 행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본래적으로 의존적이며 취약한 개인을 전제해야 하는 지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불행한 사태의 근원으로서 자율적 개인의 신화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한 가지 예로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반응을 보자. 2004년 9.11 테러 이후 쓴 5개의 논문을 묶어 출판한 《Precarious Life》에서 버틀러는 9.11 테러는 자율적이며 무적처럼(invincible) 보였던 개인으로서의 미국인 그리고 국가로서의 미국 역시 타자(타국가)에 의존적이며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고 말한다. 버틀러는 인간존재의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상호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인 9.11은 차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취약성 자체를 악으로 자율성을 선으로 규정한 미국정부 스스로의 시대착오적 대응(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그 기회가 무산되었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불투명성(opacity)에서부터 공동체에 속한 개인 또는 집단의 윤리에 대한 사유가 출발해야 한다는 버틀러의 주장을 윤리적 행정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시작되었다. 이는 윤리적 행정의 시작점은 관료와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불투명성과 상호 간의 의존성에 놓여야 한다는 명제를 말하는 것이다.

반토대주의적, 반휴머니즘적 퀴어 이론의 선봉에 서있는 학자로 알려진 버틀러는 10여 년 전부터 연구의 대상을 젠더나 성 정체성이 아닌 인간 또는 인간성(humanness) 그 자체에 두게 된다(Murphy, 2011; Kramer, 2015). 행위 전에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계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수행성(performativity)이론에 기초하여 언어와 담론의 재의미화(resignification)를 무기로 권력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던 버틀러는 9.11 사태이후 점차 개인 또는 집단의 윤

리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와 같은 그녀의 "윤리적 전회(ethical turn)"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급진적 평등을 추구하던 학자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왔다(Honig, 2013; Chambers and Carver, 2008).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전회 자체의 타당성 또는 정당성을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는 버틀러가 최초의 저서인 《Subject of Desire(1987)》에서 시작하여 그녀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던 저서인 《Gender Trouble(1990)》을 거쳐서 윤리에 대한 논의를 처음 전면에 내세운 저서인 《Giving an Account of Oneself(2005)》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Chambers & Carver(2008), Lloyd(2007), Rushing(2010) 등의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한 관점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Butler에 대한 해석은 윤리성에 대한 본 연구자 자신의 철학적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답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왜 하필 버틀러인가?"일 것이다. 자율적이고 자기 투명한 인간주체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는 주장은 버틀러뿐만 아니라 주체형성에 있어서 타자 또는 타자성과의 조우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많은 후기구조주의적 사회이론가들도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자율적, 자립적 주체는 남성주의적인 정의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다 만인평등적인 윤리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취약성, 의존성에 근거를 둔 "다른 목소리"로서의 돌봄의 가치를 국가운영의 기본가치로 하자는 주장들도 있지 않은가?(Gilligam, 2003) 간단히 말해서, 본 연구자가 버틀러의 윤리이론을 윤리적 행정을 찾아가는 나침판으로 삼은 이유는 그녀의 이론이 후기구조주의자와 돌봄윤리론자들의 주장들을 대부분 포섭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후기구조주의자로서의 버틀러는 주체는 "타자의 부름이 있는 곳(scene of address)"에서만 형성된다고 하면서 알튀세르의 관점 즉 타자의 호명이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이 주체로 형성된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비록 돌봄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존성과 취약성을 존재적 특징으로 하는 모든 개인들에 대한 평등한 애도(mour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녀의 주장들은 분명 돌봄윤리와도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나 돌봄윤리론과 달리 버틀러는 과연 누가 만남의 대상 또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누군가가 주어진 규범질서나 타자의 시선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체화된(embodied) 정체성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억지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을 경험

하면서 보다 근본적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Butler, 2009: 42). 버틀러에게 윤리적 책임은 누구를 보살펴주고 또 누구를 인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윤리나 규범이 보편성을 얻는 것은 그것의 구성적 외부로서 반드시 누군가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틀러에게 윤리는 누구도 인정하는 보편적 규범을 찾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오히려 푸코가 말하는 비판적 태도와 닮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비록 일관된 윤리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면서 극히 읽기 난해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버틀러를 독자 친화적으로 소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녀의 윤리이론만을 확대해서 본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이론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추출해서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정리된 버틀러의 윤리이론이 윤리적 행정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과 함의를 제시하겠다.

II.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이론

버틀러의 연구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데는 소화하기 어려운 것을 소화하려는 무모함뿐만 아니라 결론을 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진행되는 논의를 추적하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초기 저서인 《Gender Trouble》에서 스스로 푸코주의자임을 인정한 그녀답게 버틀러는 전통적 윤리이론의 전제, 즉 자율적, 주권적 주체들이 주어진 규범들을 지키면서 윤리적 행위가 완성된다는 주장을 철저히 부정한다. 자율적, 주권적 주체도 환상일뿐더러 우리의 행위 자체를 초월한 선험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규범은 반복된 행위들이 응고된 형태 일뿐이라고 말한다. 버틀러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은 해체되고 탈자연화(denaturalize)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젠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체를 지닌 것으로 보는 생물적 의미로의 남성, 여성 역시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 일뿐이다[1]. 따라서 버틀러(1999: xx)가 같은 책의 1999년 판 서문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그 책의 핵심내용을 "규범적 폭력"을 고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

1) 버틀러(1999: 43-44)의 젠더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젠더는 몸의 반복되는 양식화(stylization), 즉 시간이 가면서 자연적 존재의 본질의 외양을 갖게끔 응고된 아주 견고한 규제적 프레임 안에서 반복되는 행위의 세트이다."

《Gender Trouble》에서 발전된 주체와 윤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1997년의 저서인 《The Psychic Life of Power》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은 푸코의 유명한 주장, 즉 권력, 규범은 주체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공제적(deductive)인 것이 아니라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생산적(productive)인 것이라는 주장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려는 시도이다. 그 비어있는 부분이란 "왜 우리는 권력을 욕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떤 심리적 기제로 인해서 우리가 권력을 내면화시키면서 주체로 등장하는 지를 푸코, 프로이트, 니체, 알튀세르 등의 이론을 원용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리와 관련지어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열정적 집착(passionate attachments)"을 말하는 부분이다. 이곳에서 버틀러(1997: 6-7)는 아기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존재의 열쇄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에게 복종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형성된 권력에 대한 집착은 그 아기들이 성인이 되어도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단초가 된다고 말한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보다는 복종을 선택할 것이다"(Butler, 1997: 8). 이 말은 현재의 규범질서 안에서 나의 존재가 읽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사회적 죽음을 맞는 것이 되는데, 이보다는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택한다는 뜻이다. 이 책이 그 후 버틀러의 윤리와 관련된 연구에 미쳤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관계성(ek-stasis), 취약성, 의존성 등에 대한 그녀 나름의 정신분석학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버틀러는 국내에서는 《윤리적 폭력비판》이라는 다소 자의적 제목으로 번역된 저서《Giving an Account of Oneself》를 출판하는데, 이 책의 첫 쪽에서부터 버틀러는 아도르노의 도덕철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의 책의 목적이 기존의 도덕론적 담론과 자신의 윤리이론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윤리이론을 중심으로 버틀러의 윤리이론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겠다. 버틀러의 윤리이론은 이 이론에 접근하는 학자들의 전공에 따라 또 그가 이슈화시키고 싶은 주제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의 명시적, 암묵적 지원 아래 굳어지는 규범적 폭력이 모든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나 관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버틀러의 주장을 재구성해 본다.

1. 주체와 규범질서

버틀러는《Giving an Account of Oneself》의 서두에서 윤리나 도덕의 문제는 행

위를 하는 "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버틀러(2005: 3-6)는 행위 주체인 "나"는 "나"를 둘러싼 규범적 조건들과 분리시켜서 볼 수 없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틀러는 윤리적 규범들의 총합은 "나"의 출현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나에 앞서 존재하고 나를 초월하는 규범의 사회성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일 수 없는 것이다"(Butler, 2004a. 32).

규범들은 단지 주체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 이상인 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들은 어떠한 몸이, 어떠한 성이, 어떠한 젠더가 진실 되고 진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해버린다. 따라서 규범들은 개인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intelligibility)과 인정(recognizability)되게끔 만드는 주체화의 지배적인 구조이며 조건인 것이다. 결국, 내가 하나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사회의 규범의 총체가 결정하는 것이다(Butler, 2005: 30-40).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아가 좀 더 잘살기 위해서 규범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규범은 우리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해주면서 우리가 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읽혀지는 방식을 제약하면서 폭력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Butler, 2004a: 206). 세상에 "나"를 설명할 때 또는 윤리적 책임을 수락할 때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였고 "나"의 주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규범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푸코가 "진실의 레짐(regime of truth)"이라고 일컫는 현존의 규범들을 내가 부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을 수반한다. 그 이유는 "나"를 주체로 가능하게 만든 규범들을 내 스스로 비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규범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2)]

우리사회에 현존하는 규범들은 분명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이 주체가 될 가능성을

2) 이 지점에서 우리는 초기의 버틀러와 21세기의 버틀러와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초기의 버틀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체성(identity)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Gender Trouble》에서 버틀러는 여성, 여자라는 정체성은 여성지배의 도구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출판된 《Undoing Gender》와 《Precarious Life》, 2005년 출판된 《Giving an Account of Oneself》에서는 정체성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살기 적합한 삶(livable life)"에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현재 사회에 있는 규범들 가운데서 취할 수 있는 정체성과 내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버틀러에게 실존적 의미를 지니는 간과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이다.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현존하는 규범질서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을 얻는다면 "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버틀러는 《Undoing Gender》에서 성전환자를 상대로, 《Precarious Life》에서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의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현존하는 규범질서에서는 인간으로 분류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 따라서 인간적인 삶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을 버틀러는 고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버틀러가 푸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버틀러는 푸코의 주체에 대한 이해, 즉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담론적 실천들이 미리 정해 놓은 주체의 위치를 개인이 나중에 차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이해를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버틀러(2005: 22)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는 말 그대로 무엇이 인정 가능한 형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진실의 레짐에 사전에 구속되어있다"라고 푸코식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나의 행동을 누군가에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일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규범적 언어를 통해 말하여지는 "나"는 (진정한 "나"가 있다고 가정하면) 진정한 "나"와는 분명 거리가 있는 존재일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지점에서 버틀러는 푸코와 갈라서고 있다. 그 이유는 규범의 지배를 받는 주체가 구체적 타자들과의 사이에서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푸코는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에게 윤리적 행위는 구체적 상대방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식이 아니라 권력에 기초하고 있는 규범질서 안에서 그 질서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생의 말년의 푸코가 윤리적 주체를 강조하는 것도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실천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가꾸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버틀러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병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한다. 오히려 버틀러는 자유주의자들이나 후기구조주의자들이 들으면 의아해할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사실(unknowability) 또는 "나"의 불투명성(opacity)은 "나"의 윤리적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주장이다[3]. 이 점에 있어 버틀러의 입장은 확고하다. 윤리적 행위가 가능할 때는 주체가 자신의 불투명성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조건임을 인식하고 행위의 명확성, 일관성, 응집성을 강요하지 않고 행위의 불명확성, 비일관성, 산

3) 버틀러(2005: 42)는 윤리라는 이름으로 주체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윤리적 폭력(ethical violence)"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만성을 용서할 때이다. "나는 내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자신에 대하여 부분적인 불투명성으로 구성되어있는 타자들에 대하여도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비슷한 의무 아래 놓여있다"(Butler, 2005: 42)

자유주의 윤리학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투명한 주권적, 자율적 주체만이 윤리적 행위나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포스트모던 또는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권력이나 담론에 의해 형성된 주체에게 어떤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정치가 윤리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틀러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위의 두 가지 관점 모두를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불투명성이 자신의 존재적 조건임을 받아들이는 주체일 경우라야만 윤리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직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버틀러가 푸코가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재조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윤리적 행위는 내가 "나"의 행위를 누군가 상대방에게 설명하면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푸코는 상대방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 반면에 버틀러에게 윤리적 행위는 "나"와 규범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타자와의 관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규범질서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지를 탐구할 필요가 생긴다.

2. ek-static한 존재로서의 주체

버틀러에게 인간 주체는 자신 밖에 존재(outside-itself)한다는 의미로의 ek-static한 존재이다. 그녀는 최초의 저서인《Subjects of Desire》에서 헤겔의《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욕망과 자기의식과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ek-static의 의미를 분명히 한다. 미국에서 1950, 60년대의 만화영화의 주인공 가운데 Mr. Magoo가 있다. 그는 자동차를 몰고 남의 집 닭장으로 돌진하는데 항상 네 바퀴가 멀쩡한 상태로 안착을 한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른 닭장을 향해서 돌진한다. 그리고 또 실패를 한다. 여기서 Mr. Magoo는 욕망에 이끌려 계속 여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자기의식을 지칭한다면 이때 자기의식은 어느 한곳에 안주할 수 없는, 영원히 자신의 밖에 존재하는 의식이다. 버틀러(1987: 13)에 따르면, 주체는 "자기 자신의 완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버틀러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The Psychic Life of Power》에서 오이디푸스 콤

플렉스 이전 시기에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이는 동성 간의 사랑이 근본적 의미에서 배제(foreclosure)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배제는 우리에게 생존 또는 계속적인 존재를 약속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복종하게 되면서 파생되는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대상 또는 방식을 상실했지만 우리의 내면 어딘가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우울(melancholia)에 빠져 있는 존재다. 본 논문에서 우리가 왜 타자의 영향에 취약한가 하는 버틀러의 정신분석학적 설명을 자세히 고찰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녀의 인간 존재의 "근본적 관계성(primary relationality)"에 대한 사유가 프로이트 계통의 정신분석학적 기초 위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타자와의 관계가 주체 형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주장은《Giving an Account of Oneself》에서 더욱 구체적 형태를 띤다. 여기서 버틀러는 우리가 규범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구체적 규범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타자와의 만남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버틀러에게 타자가 중요한 이유는 규범이 제공하는 "나" 또는 타자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인정가능성은 타자 또는 "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한 사회의 규범들 속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인식되고 인정되는 것은 타자가 그와 같은 인식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버틀러가 상정하는 규범은 소크라테스의 자기성찰이 아니라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의 전통적 의미를 버틀러를 거치면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 윤리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당연시 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해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면 버틀러에게 윤리는 바로 "너"(who "you" are)의 문제가 된다. "나"는 "나"에 대하여 불투명하다. 상대방도 자신에 대하여 불투명하다. 과연 현재의 규범질서에서 내가 너를 인식, 인정할 수 있을까? "나"는 너로부터 과연 진정한 "나"로서 인식, 인정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과 인정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인가? 아니면 인식과 인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사는 것이 더욱 인간적인 삶인가? 이와 같은 종류의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대접을 해줄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관계성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면서 스스로에게 불투명한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들이라고 버틀러는 믿고 있다.

ek-static한 존재가 비로소 윤리적 주체가 되는 곳은 타자들의 부름에 반응하여 우리가 인식, 인정가능한 주체로 등장하는 곳, 버틀러(2005: 50)의 말로는 "타자의 부

름이 있는 곳(scene of address)"에서이다. 이 때 버틀러의 윤리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타자의 부름, 타자의 호소에 대한 버틀러식의 이해이다. 이 부분에서 버틀러는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윤리철학에 크게 의존하면서 타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틀러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한도에서나마 레비나스의 윤리철학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레비나스의 주장 가운데 버틀러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주체는 타자가 "나"를 침범하면서 등장한다는 주장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나"는 타자에 의한 충격 이후에 이 충격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레비나스 윤리철학에서 타자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비록 버틀러가 꼭 이를 부정적 또는 폭력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레비나스는 "나"와 타자의 관계를 고발(accusation) 그리고 박해(persecution)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레비나스 주장의 핵심은 "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근본적 부자유(unfreedom)를 경험한다는 사실이다(Butler, 2005: 85). "나"는 타자의 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타자의 행위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푸코와 레비나스는 주체는 개인의 의식적, 열정적 자아형성 노력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 푸코가 주체는 담론질서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에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절대적 개방성, "타자에 대한 무제한적 민감성(susceptibility)"이 주체를 형성시키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점에 있다(Butler, 2004a: 130-1).

그러나 레비나스 윤리철학의 진수는 내가 타자에 의한 침범, 박해를 통해서 하나의 주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그 타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나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결코 자유의 영역에 있는 나의 행위나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론(ontology)이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타자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나의 피할 수 없는 대답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타자가 "나"에게 가하는 충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내가 나의 주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타자는 이미 나의 주체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주체와 타자는 결코 땔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 인간의 존재적 조건: 취약성(vulnerability)과 불안정성(precariousness)

몸(body)은 버틀러의 전체 연구를 가로지르는 가장 핵심적 주제이다. 《Gender Trouble》이 규범적 폭력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써졌다면 그녀의 논의는 젠더 규범의 효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적육체(sexed body)를 탈자연화시키는데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 출판된 《Undoing Gender》와 《Precarious Life》 이후로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버틀러는 "취약성(vulnerability)"를 드는데 주저함이 없어진다. 즉, 취약성 자체가 몸의 정의(definition)가 되는 것이다[4].

> 몸은 죽음(mortality), 취약성, 행위력(agency)을 뜻한다: 피부와 육체는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접촉과 폭력에 우리를 노출시킨다 …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만 우리의 몸은 사실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다 … 처음부터 타자들의 세상에 건네지고, 그들의 낙인을 짊어지고, 사회적 삶의 도가니 속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몸은 오직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불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된다(Butler, 2004b: 21).

자신의 생존과 육체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어린 아기 때의 취약성에서부터 나의 체화된 모습을 경멸과 무시의 시선으로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상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빠질 수밖에 없는 비탄과 애도는 우리의 몸이 바깥세상을 향해 열려진 것이라는 점을 웅변하는 것이다[5]. 레비나스가 타자의 영원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주체를 말하는데

---

4) 인간의 근본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버틀러의 시도에 대하여 Bonnie Honig 같은 학자는 이를 "죽음의 인본주의자(mortalist humanist)" 관점이라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즉 Honig(2013: 17)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면서 버틀러는 "죽음의 존재론적 사실"과 "고통에 대한 취약성"만을 강조하고 있지 탄생성(natality), 즐거움, 욕망 등은 경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5) 인간의 취약성이 가장 잘 들어나는 사건으로 버틀러는 애도(mourning)를 들고 있다. 누군가 저 세상으로 보냈을 때 우리는 비탄과 애도에 빠진다. 애도를 하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무엇이, 우리가 타자들과 맺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유대를 말하는 무엇이 들어나게 된다." 누군가 나를 떠났을 때 "내가 너를 잃지만 동시에 나도 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Butler, 2004a: 22).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떠나보냈다면 내가 나이게 만든 그를 보내면서 동시에 나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버틀러(2004a: 28)는 애도는 탈취(dispossession)의 한 형태라고 본다. 애도 과정은 결국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의 몸에 의해서 해체(undone)되는 과정이며 이런 해체를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는 항상 타

버틀러는 이때의 주체는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니라 체화된 존재임을 분명히 하면서 취약한 주체가 함축하는 윤리적 의미를 레비나스와는 달리 구체적인 정치나 사회생활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실 인간의 취약성은 페미니즘 이론가들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주체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당한 윤리적 함의를 지닌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Bergoffen(2001)은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는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취약한 존재로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Diprose(2002)는 사회계약에 기초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인간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체화된 취약성을 애써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취약성에 내재하는 윤리적 함의를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체화된 인간이 타자 또는 외부의 힘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Tronto(1993)와 Kittay(1999) 등과 함께 돌봄의 가치를 주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논리는 모든 사람은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때인가는 체화된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돌봄의 윤리는 사회적, 아니 국가적 윤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들의 논리와 버틀러의 논리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돌봄윤리론자들에게 타자는 항상 구체적이고, 알려져 있고 또 알 수 있는 타자들이다. 즉 이들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와 "너"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인간 또는 인간사회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버틀러에게 취약성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때는 현존하는 규범 질서 속에서 그리고 타자에 대한 침범을 수동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인식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이다. 버틀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하여 국가적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에 대하여 버틀러가 반대하듯이 국가가 나서서 돌봄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누가 돌봄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범적 폭력을 통해서 국가가 재단할 기회를 제공할 위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 취약성에 대한 또 다른 윤리적 반응은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돌봄의 가치가 아니라 비폭력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Adriana Cavarero(2000)와

자와 같이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Kelly Oliver(2008) 등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경험은 타자들의 취약성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각자가 취약성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취약성 자체를 인간적 조건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간주하는 경우 자신의 취약성을 타자의 취약성과 연관 지을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많이 보이는 취약성 관련 연구들은 자신의 인간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비폭력적인 윤리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취약성과 비폭력성을 연관 짓는 시도에서 버틀러의 위치는 다소 애매하다. 버틀러는 레비나스가 그러했듯이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비폭력적 대응을 결과하지 않음을 《Precarious Life》와 《Frames of War》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 즉, 내가 비록 나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취약하다고 느끼면 인간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취약성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Ann Murphy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간의 취약성이 비폭력적 대응을 요구하는 윤리를 결과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첫째, 많은 경험적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했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더욱 공격적,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자신이 탈취(dispossession)됐다는 느낌,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대상이 되고 취약하다는 느낌 등은 공감, 돌봄, 관용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폭력을 촉진할 수도 있다"(Murphy, 2012: 68). 두 번째로 순순히 윤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취약성에 대한 경험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9.11 당시의 미국의 예에서 보듯, 자신의 취약성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보복적,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판할 근거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약한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 방식이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틀러는 상당히 독창적인 주장을 통해서 인간의 취약성이 우리에게 특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독창적이란 불안정성(precariousness)의 보편적 특징과 개별적 현상 형태를 구분하여 책임과 의무를 도출해내는 버틀러의 작업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취약성을 핵심내용으로 가지는 불안정성은 인간의 삶에 보편적 조건인 것이지만 인간은 그 불안정성을 아주 개별적, 특수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불안정성은 이와 같은 삶 또는 저와 같은 삶의 특징으로 단

순히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불안정성 자체를 부정함으로써만 부정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다"(Butler, 2009: 22). 여기서 버틀러는 취약성, 불안정성을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안정성의 보편적 특징은 평등의 윤리를 전제하는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등한 불안정성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인간들이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 저편에서 우리와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나는 내가 모르는 타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이유 없는 폭력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내가 타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타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다른 조건에서는 나에게로 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성의 평등화는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동일시하게 만들면서 윤리적 분노를 촉발시키는 동인인 것이다. "우리가 타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다짐해야 한다는 원칙이 …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 말고 어디서 나오겠는가?"(Butler, 2004a: 30).

인간의 취약성에서 도출되는 또 다른 윤리적 의무는 그것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또는 한 사회 내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데서 출발한다. 버틀러는 2009년의 책 《Frames of War》에서 불안정성의 불평등한 배분을 precarity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보편적 precariousness와는 구분하고 있다. 사실 precarity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의 불안을 항시적으로 느끼면서 주변화된 노동자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버틀러는 이 단어를 통해 전체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적 삶의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면서 위험과 불안정성, 취약성, 폭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인간집단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버틀러는 특정한 개인(국민)들에게 불안정성의 집중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을 더욱 노골적으로 만들면서 인간들 사이에도 인간(human), 비인간(non-human), 조금 더 인간(the more human), 조금 덜 인간(the less human), 적절한 인간(the properly human), 유령적 인간(the spectrally human)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Feola, 2014: 134). 따라서 버틀러에게는 돌봄윤리론자들의 주장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혜택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면서 과도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평등한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갖는 인간의 지위로 되돌리는 것이 정부나 국제기구 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윤리적 책임, 의무가 된다.

Ⅲ. 버틀러와 행정윤리

행정학자적 관점에서 버틀러의 윤리이론이 윤리적 행정이라는 화두에 던지는 질문과 함의는 무엇인가? 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버틀러가 윤리적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적어도 세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정부정책이나 관료들에 의한 행정행위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규범적 폭력을 심화시키고 있지 않나하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규범들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주체성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러나 누군가 체화된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현존의 규범질서에서 찾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정부행정이 이 규범질서를 무비판적으로 강제할 때 그 사람은 비유하자면 자신의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격어야만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그 규범질서에 저항한다면 그래서 그 질서의 외부에 자신을 위치시킨다면 그는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사회적 죽음"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보편적 규범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윤리적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사회적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어진 규범의 옷을 입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현재의 규범질서 속에서 억지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소수자 집단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대응은 규범이 개인들의 정체성을 강제적으로 제단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다 개방화되고 유연한 형태로 규범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인다. 만약 정부가 윤리적 행정을 진정으로 지향한다면서 규범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 정부가 말하는 윤리적 행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허명일 뿐이다.

버틀러가 윤리적 행정에 대하여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결코 자율적, 주권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간들 사이의 "근본적 관계성(primary relationality)"에 따라 오로지 타자의 인식과 인정을 통해서만 주체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적 행정과 사회에 존재하는 인정질서와의 분리될 수 없는 관련을 알 수 있다. 인정이라는 개념을 윤리학의 기본 개념의 하나로 정착시킨 호네트(1995)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간의 인정을 통한 "자기확신(self-conviction)", "자기존중(self-respect)", "자기가치(self-worth)"를 느낄 수 있는 인정질서의 정착이다.

그러나 버틀러가 생각하는 인정은 모든 개인은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불투명하다

는 주장과 맞물리면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자기 스스로로부터 항상 외부에 존재하는 ek-static한 존재로 인간을 보는 버틀러는 섣부른 인정이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을 더욱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버틀러는 무조건적인 인정을 지양함과 아울러 스스로에 대하여 불투명한 주체들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려는 사회적 시도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따른다면 윤리적 행정이란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성, 일관성, 응집성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정부권력이 윤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대상의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하여 불명확성, 비일관성, 산만성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틀러가 윤리적 행정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은 인간의 본래적 불안정성과 취약성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다. 혹자는 버틀러가 돌봄윤리론자와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버틀러는 인간의 취약성이 곧바로 돌봄의 당위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즉 취약한 나는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기보다 나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이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돌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돌봄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규범적 권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해 질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가 보는 인간의 취약성에서 결과하는 윤리적 행정은 그것이 돌봄을 지향하기 보다는 비폭력적인 것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보편적 삶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의해서 행사되는 규범적 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건 아니면 지구 안에서의 어디서 벌어지건 간에 인간의 평등한 취약성에 기초하여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가 주는 윤리적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행정권력의 폭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당위가 된다.

인간 또는 주체에 대한 버틀러의 연구가 윤리적 행정에 주는 마지막 교훈은 인간 모두는 불안정성(precariousness)의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서로 달리 경험하는 측면을 말하는 precarity의 면에서는 불평등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정부가 아무리 행정을 잘 한다 하여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버틀러는 보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민들 간에 또는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안정성의 불평등은 정부가 나서서 수정할 것을 버틀러는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겪는 수

많은 사건, 사고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년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생존을 위협당하거나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 이는 우리 사회도 불안정성의 불평등한 분배라는 정의롭지 못한 상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과도한 불안정성을 부담하는 이들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그보다 못한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버틀러(2004a: 141)는 보는 것이다.

Ⅳ. 맺음말: 새로운 휴머니즘적 행정을 위해서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철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간으로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허구성을 처음 분명히 한 학자는 한나 아렌트(1968)이다. 그녀에 따르면, 국가가 없는 난민들에게는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권리의 실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그들이 속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음으로 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 가능성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 조르지오 아감벤(1998)은 아렌트의 주장에 역사적 깊이와 철학적 사색을 더한다. 그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적 외부로 존재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로부터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인간집단의 역사를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하려 한다. 버틀러의 연구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연구들도 위 두 학자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버틀러(2004b: 2)의 주장으로 뒷받침된다: “우리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조건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인간성(humanness)’를 부여하는 조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위치(인간성)를 박탈해가는 것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이하(less-than-human)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버틀러는 분명 휴머니스트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인간 본질, 또는 본성을 전제하는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누구라도 인간이 될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킨다는 의미로의 휴머니스트인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자신

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살아갈만한 삶(livability, livable life)"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갈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현재 대부분의 정치, 행정이론들이 가정하는 주체는 스스로에게 투명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의도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유로운 주권적 주체이다. 버틀러는 이와 같은 주체는 타자에 대하여 억압적이고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버틀러의 주체는 자기 스스로에게 불투명하고 타자의 부름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주체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또 상대방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이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의 행정 역시 국민들 하나하나의 정체성을 현재의 규범질서에 비추어 평가하고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단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보다 바람직한 또는 윤리적 행정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행정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려 하거나 그에 대하여 판단하려 하는 권력의 욕망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버틀러(2005: 136)는 윤리가 가능해지는 순간을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체(undone)되는 것을 수락하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인간인 되는 기회를 형성시키는 때"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른 윤리적 행정은 사회가 정해 놓은 인간범주에 각각의 개인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삶과 사회적 범주 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긴장과 갈등을 우호적으로 보는 행정이다.

▣ 참고문헌

김희강. 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22(1): 5-30.

마경희.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여성주의 복지정치를 위한 시론.", 《페미니즘연구》, 11(2): 85-116.

Agamben, Giorgio.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박진우 역(2009).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Arendt, Hannah. 1968.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Cavarero, Adriana. 2000. *Relating Narratives: Storytelling and Selfhood.* Trans.

Paul Kottm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hambers, Samuel. and Carver, Terry. 2008. *Judith Butler and Political Theory: Troubling Politics.* New York: Routledge.

Bergoffen, Debra. 2001. "The Politics of the Vulnerable Body.", *Hypatia* 18(1): 116-34.

Butler, Judith. 1987. *Subjects of Desire: Hegelian Reflections in Twentieth-Century Fr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_____. 1997. *The Psychic Life of Powe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9. *Gender Trouble.* 2nd ed. New York: Routledge. 조현준 역(2008).《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서울: 문학동네

_____. 2004a.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양효실 역(2008).《불확실한 삶》,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_____. 2004b.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존현준 역(2015).《젠더 허물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_____. 2005.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양효실 역(2013).《윤리적 폭력 비판》, 서울: 인간사랑.

_____. 2009.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London: Verso.

Diprose, Rosalyn. 2002. *Corporeal Generosity: On Giving with Nietzsche, Merleau-Ponty, and Levina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Feola, Michael. 2014. Norms, Vision and Violence: Judith Butler on the Politics of Legibility.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13(2): 130-148.

Gilligan, Carol. 200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onig, Bonnie. 2013. *Antigone, Interrup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nneth, Axel.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Joel Anderson trans. Cambridge: The MIT Press. 문성훈, 이현재 역(2011).《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사월의 책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New York: Routledge.

Kramer, Sina. 2015. "Judith Butler's 'New Humanism'.", *Philosophia.* 5(1): 25-40.

Lloyd, Moya. 2007. *Judith Butler: From Norms to Politics.* London: Polity.

Murphy, Ann V. "Corporeal Vulnerability and New Humanism.", *Hypatia.* 26(3): 575-590.

Oliver, Kelly. 2008. *Women as Weapons of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ushing, Sara. 2010. "Preparing for Politics: Judith Butler's Ethical Dispositions.",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9(3): 284-303.

Tronto, Joan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